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금, 비트코인 강세..미국증시도 상승 마감

- 미국증시 주요지수 상승 마감
- 국채 '바이백' 효과 모두 반납..금·비트코인 강세
- 서비스업 PMI 기대 이상..제조업 성장은 둔화

Summary

미국증시 옵션만기일 상승 마감

현지시각 8월 21일 금요일 미국증시는 주요지수 일제히 반등.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해 바이백 확대 발표 이전 레벨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주식시장은 옵션만기일이었던 이날 저가 매수세 유입과 순환매 흐름으로 반등.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98% 상승한 53,277.01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43% 상승한 7,674.37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0.44% 상승한 26,180.45에, 나스닥 100 지수는 0.33% 상승한 29,308.86에 마감. 러셀 2000 지수는 0.85% 상승했고, 변동성 지수 VIX는 5.50% 하락, 15.13에 거래를 마칩.

(다우 +0.98%/ S&P500 +0.43%/ 나스닥 +0.44%/ 러셀2000 +0.85%)

이날 반등에도 미국증시 주요지수는 주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다우지수는 한 주간 0.85% 하락해 주간 수익률 기준 2주 연속 하락했고, S&P500 지수는 한 주간 1.43% 하락하며 4주만에 약세 전환함. 나스닥 지수 역시 한 주간 2.05% 하락을 기록하며 4주만에 약세 전환.

바이백 효과 이틀만에 원위치

미 국채 금리가 30년물 기준 19년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재무부가 내놓은 장기채 바이백 확대 방안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시장 평가가 우세해지자 미 국채 금리는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반등, 바이백 효과에 급락했던 부분을 거의 모두 되돌림.

JP모건은 장기채를 되사는 데 쓴 현금을 또 단기채 발행으로 보충하는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방안에 대해 장기 채무를 단기 차입으로 갈아타는 것에 비유하며 “주택 담보 대출을 신용카드로 갚는 격”이라고 지적. 당장은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기가 빨리 돌아오는 단기 국채를 더 자주 롤백해야 한다는 부담은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역시 “미 재무부는 장기물 수익률을 통제할 수 없다”며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상황에서 바이백 확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노

무라도 바이백 계획을 ‘총상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에 비유하며 “시장 세력을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

미국채 금리 하락에 미친 바이백 효과는 미미했지만 달러에는 본격적 약세 압력으로 작용. 결국 금리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부채라는 인식이 부각돼 달러 약세를 촉발했고 재무부의 급작스러운 바이백 확대 조치 역시 미국의 통화,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달러 가치 하락을 견인함.

비트코인 7.8만 달러 회복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비트코인이 급등. 비트코인 가격은 한주간 24.68% 상승하며 주간 상승률로 3년래 최대를 기록.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발표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저항선을 돌파,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 다음달 중순 클래리티법 의회 통과 기대, 그리고 달러 약세 환경 등이 한 번에 상승 재료로 반영, 급등세에 힘을 보탬. 블룸버그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복귀가 포착되고 있다며 미국에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지난 1월 이후 주간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 관련 13개 ETF에는 한주간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이른바 ‘비트코인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보유자들은 최근 60일간 약 27억 5천만 달러 어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짐.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 뿐 아니라 금값에도 강세 재료로 반영돼 4,500달러 저항을 뚫은 금값은 4,680달러선까지 반등함.

서비스업 PMI 예상 상회

S&P 글로벌이 집계해 발표하는 미국의 8월 종합 PMI(예비치)는 전달 54.5에서 56으로 상승해 지난 2022년 4월 이후 가장 강력한 확장세를 나타냄.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업 확장세가 힘을 받은 반면 제조업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6.8을 기록해 7월 수치 54.6 대비 2.2포인트 상승을 기록. 이는 20개월만의 최고. 반면 제조업 PMI는 53.2를 기록, 7월 수치 대비 0.7포인트 하락. 이는 5개월래 최저. 서비스업 상승세가 강력하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 성장세는 다소 둔화됨.

한편 물가 압력은 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평균 투입 비용이 지난 2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해 다소 완화되는 흐름.

특징종목

S&P500 구성 섹터 중에서는 소재(+2.20%), 헬스케어(+1.32%), 금융(+1.01%), 재량 소비재(+0.91%), 통신 서비스(+0.86%) 섹터가 비교적 큰 폭 상승했고 유틸리티(-2.31%) 섹터는 하락 섹터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컸음.

헬스케어 강세: 주간수익률 2개월래 최고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한 주. 주간 마지막 거래일에도 헬스케어 종목들의 활약이 두드러짐. 헬스케어 인덱스는 주간 4% 이상 상승해 한 주간 7.9% 상승했던 6월 26일 주간 이후 최고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

모더나(+8.86%)는 이날 개인맞춤형 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반영해 전일 하락을 딛고 재차 상승. 모더나와 백신 개발을 함께 진행한 머크(+2.39%) 역시 전일 하락분을 되돌렸으며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콧(+2.35%), 일라이 릴리(+0.88%), 존슨 앤드 존슨(+1.07%), 암젠(+1.29%), 길리어드 사이언스(+1.87%), 화이자(+1.01%), 애브비(+1.20%) 등 제약주 전반이 강세. 버텍스 파마슈티컬(+1.44%), 리제네론(+0.90%) 등 바이오텍, 애보트 래보러토리스(+2.19%), 메드트로닉(+1.14%), 보스턴 사이언티픽(+2.03%), 텍스콤(+2.35%) 등의 의료 장비주와 다나허(+1.36%), 아이덱스(+2.03%) 등 진단 관련주 등 업종 전반이 강세.

비트코인, 강세 또 강세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시현 중인 가운데 이날 78,000달러도 돌파, 한 주간 상승률은 25%대에 육박, 2023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 이에 증시에서도 코인베이스 글로벌(+8.20%), 로빈훅 마케츠(+13.70%), 마라 홀딩스(+0.99%), 스트래티지(+6.10%) 등 관련주가 강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6.10%)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한때 130억달러대까지 평가손실이 불어났었지만 이번 급등 구간 평가 이익으로 반등, 약 16억 9천만달러 평가 이익을 기록 중.

테마-양자컴퓨팅, 우주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급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사업 내용 관련 기술적 진전을 알리는 소식도 전해져 전반적 투자심리가 살아남. 두 개의 극저온 모듈을 하나의 환경에 결합, 냉각시켰다고 발표한 IBM(+0.85%)을 비롯해 BMO 캐피털 마켓이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함께 35달러 목표가를 제시한 디웨이브 퀀텀(+8.46%)이 강세. 이외 리게티 컴퓨팅(+11.48%), 퀀텀 컴퓨팅(+9.58%), IQM 퀀텀 컴퓨터스(+14.77%), 인플렉션(+12.51%), 아이온큐(+8.02%), 퀀티넘(+3.10%) 등이 동반 상승.

스페이스X(+2.22%)는 2차 랍업 물량 해제에도 나흘만에 반등했고 AST 스페이스모바일(+5.52%), 레드와이어(+2.12%),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3.47%) 등의 우주 산업 관련주 전반이 대체로 동반 상승.

빅테크, 개별 이슈 소화하며 혼조

테슬라(+5.14%)는 네바다에서 최대 5천대 규모의 자율주행 차량 운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중국에서 매립형 도어 핸들의 안전성 관련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약 300만대 차량을 리콜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음. 별개로 테슬라는 오는 9월 3일 사이버캡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애플(-0.63%)은 시리, 비전프로 3D 영상, 미디어 및 게임 관련 조직에서 2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엔비디아(-0.98%)는 데이터센터 전력 개발사 클로버리프 인프라스트럭처에 수 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내년 초 출하 예정인 베라 루빈을 비롯 그레이스 블랙웰 등 AI 서버 시스템 가격이 다수 제품에서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고객사에 통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짐.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격 인상은 메모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급등한 D램 비용이 주요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설명. 마이크로소프트(+0.43%)와 구글(+1.22%) 등 하이퍼스케일러에 서버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들도 이미 고객들에게 가격 인상 방침을 통보.

아마존닷컴(-0.57%), 마이크로소프트(+0.43%), 구글(+1.22%), 메타(+0.75%) 등은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구축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들의 인프라 투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

브로드컴(+1.21%)이 AI 스타트업 엔트로픽 관련 거래 지원을 위해 6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차입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보도. 구체적 거래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 속에 브로드컴이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짐.

JP모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78%)와 샌디스크(-0.28%)에 대해 디램/낸드 시장 매출이 2028년까지 약 1.8조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메모리 업황 고점이 기존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시.

한편 시장 전반의 강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군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의미있는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 0.51% 하락했고, 인텔(-2.24%), 마벨 테크놀로지(-5.57%), 웨스턴 디지털(-2.05%), KLA(-1.01%) 등의 낙폭이 두드러졌으며 이외 대부분 종목군이 보합권에 머물렀음.

장비 업종 내 테라다인(-1.93%)은 베어드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 가운데 비교적 크게 하락. 베어드는 AI관련 성장성에 대한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단기 촉매 발현 시점의 불확실성 등이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

이외 특징주

전일 실적 발표 이후 급락했던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0.10%)는 실적 발표 이후 잇따른 목표가 하향에 장 중 추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소폭 반등 마감.뱅크오브아메리카는 월마트에 대해 목표가를 기존 144달러에서 126달러로 하향했지만 매수 의견을 유지했으며 이번 주가 조정은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업을 매수할 매력적인 기회라고 평

가. 구겐하임도 목표가를 기존 135달러에서 130달러로 낮췄지만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

유틸리티 종목군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서던 컴퍼니(-2.72%)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컴퍼니(-3.79%), 센터 포인트 에너지(-3.56%), 퍼스트에너지(-2.59%) 등에 대한 모건스탠리의 목표가 하향 조정이 이날 업종 전반의 하락을 야기한 것으로 읽힘. 모건스탠리는 이번 목표주가 조정이 특정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섹터 멀티플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멀티플 조정에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 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

금값 급등을 반영해 뉴몬트(+3.09%)가 상승했고, 구리 가격의 동반 강세에 프리포트 맥모란(+7.64%)도 오름폭을 확대.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이틀 연속 상승

미 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 미 재무부의 국채 매입 조치가 근본적인 금리 상승을 제어할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인식 속에 국채금리는 '바이백 확대' 조치 발표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4.8bp 상승한 4.2359%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3.0bp 상승, 4.7339%까지 올라섬.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금리는 2.3bp 상승한 5.2709%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9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38% 후반대로 가격에 반영.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50% 초반대로 상승.

바이백 확대 여파 지속..달러 약보합

미국 달러화 가치는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조치 발표로 불거진 달러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락. 미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유가도 상승반전해 낙폭을 줄였지만 달러 가치 반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함.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10% 하락한 98.80을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11개월만에 최저 수준인 1,386.5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15원)을 감안 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0.55원 하락, 1,385.80원에 최종 호가 됨.

국제유가 소폭 상승

국제유가는 전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 경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까지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에 소폭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으며 이란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맞서는 등 양측의 자극적 언사는 지속되고 있으나 상황의 본질적 변화는 포착되지 않음.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각 24일 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26% 상승한 배럴당 87.06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10월물은 0.65% 상승한 배럴당 94.39달러에 마감.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온스당 4,500달러선 저항을 뚫으며 추가 상승 중인 금가격은 이날도 상승세를 지속, 4,600달러도 돌파.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 산하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2% 이상 급등해 4,680달러대를 기록. 이는 지난 5월 29일 이후 최고치. 금값은 한 주간 약 5% 가량 상승해 올해 2월 초 이후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 금값의 상승 역시 재무부의 장기채 매입 프로그램 확대에 불거진 달러에 대한 신뢰 훼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읽힘. 은도 2% 이상 상승해 온스당 70달러대를 회복했고 구리 가격도 1.8% 동반 상승.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